

K-산업, 긴급 경영체제 본격 돌입... '리스크 관리' 최우선

정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강화
정부-기업, 공급망 안정화 등 협력
반도체, 비용증가 대비 안정책 마련
정유, 해외 신뢰도 회복 방안 모색
조선, 재무 리스크 점검·대응 박차

비상 계엄령 사태로 국내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사업 구조상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조업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수적으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 LG 등은 최근 실적 악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리스트에 이어 계엄령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대내외 정치 리스크로 인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4일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은 계엄령이 해제됐음에도 비상 경영진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그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환율 급변동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데다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차질 등으로 인한 대책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의 주요 기업은 비상계엄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해제된 만큼 대책 회의에 돌입한 것 외에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인 근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외환시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원/달러 환율은 40원 가까이 급등하며 1440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원/달러 환율이 상승폭을 줄였다.

금융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한때 급등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빠르게 회수했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리스크가 단순히 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기초 체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 말했다.

◆비상회의 소집 "대응책 논의"

반도체 산업의 경우 중간 부품류 수출이 많은 업체인 만큼 계엄령 사태에 따른 정치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할 경우 국제적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원자재인 웨이퍼와 등 핵심 소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그룹은 이날 오전 최창원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사장단 회의 진행했으나 SK하이닉스에 국한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공장들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이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장치 등 대책을 마련한 만큼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는 날 오전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개별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환율 및 금융 시장 동향을 살피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LG는 국회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근무하다 보니 상황이 악화될 것을 고려해 문자를 통해 재택 등 유연 근무를 권고했다. LG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상황 악화를 대비해 재택근무 등을 권유했다"라며 "재택근무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인원들은 기존대로 회사에 출근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리튬, 니켈 등 필수 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정치상황보다는 해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조 단위 규모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원화 가치가 하락된다면 투자 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 철강 업계도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정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오늘 오전 7시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다. 긴급 소집된 사장단 회의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한 경제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각사별 대응전

략을 수립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국내의 상황이 긴박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사 사장들은 비상경영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환율 등 재무리스크를 집중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박일준 상근부회장 주재로 임원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정상적 경영활동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내부적으로 경제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석유 등 정치리스크 확대 우려

가장 환율에 예민한 업종인 정유 항공 업종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면 환율의 급등락은 물론 해외 시장의 신뢰도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약 3조를 넘어서는 외화부채가 있는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270억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다. 정유업계 또한 원유 구입 비용이 증가하며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 반도체 업계 물론 국내 산업 전반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도 OLED 패널 제작에 필요한 특수화학물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혼란 속 급증한 생필품 '사재기'... 통조림·라면 매출 3배 상승

계엄령 발효 후, 50대~60대 중심 증가
즉석밥 70%·라면 50%·주류 30% ↑
업계 "생필품 판매 급증 일시적 현상"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여파에 소비자들이 생필품부터 챙겼다. 계엄이 선포되자 오후 11시 이후 통행금지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비상계엄 후 약 1시간 동안 사재기 현상이 일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편의점에서 생필품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A 편의점에 따르면 3일 오후 11시부터 4일 자정까지 전 점포 기준으로 전주 동일 요일 및 시간대 대비 생수, 즉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내부. /뉴스시스

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조림 판매량은 337.3%, 봉지면은 253.8%, 생수는 141.0%, 즉석밥은 128.6%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책가에 위치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생필품 구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며 "현장 직원들에 따르면 50대~60대 고객들의 수요가 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B 편의점도 같은 시간대에 전일 대비 통조림 및 라면 매출이 3배 증가했고 생수·즉석밥류와 휴지 매출도 2배 가량 상승했다. C 편의점 역시 동시간대 전일 대비 생수 매출이 40%, 햇반 등 즉석밥류가 70%, 라면과 주류가 각각 50%, 30% 증가했다. D 편의점에서는 통조림 매출이 75.9%, 햇반이 38.2%, 생수가 37.4%, 라면이 28.1% 늘어나며 생필품 위주로 매출 상승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재기 현상은 혼란한 상황

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되며 시민들의 불안을 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 고 모 씨는 "혼자 살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니 온갖 상상이 다 들었다"며 "11시 이후 통행이 제한되고 물품이 제한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 급히 라면 한 박스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맘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계엄령 선포 직후 마트에서 물건이 동나는 줄 알았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등 시민 반응이 쏟아졌다.

일시적인 매출 상승은 있었지만, 이를 사재기 수준으로까지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잠시 증가하긴 했지만, 사재기라고 부를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그시간대 생필품 매출이 잠시 오르긴 했으나 배송에 차질 있었던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택근무에 돌입하거나 특별한 지침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밤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했을 뿐, 재택근무나 현 상황 대비 특별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명령 불복 시 처단?'... 의료계 "독재는 물러나라" 분노 폭발

'반민주적 행태에 참담하다' 비판
의료인 복귀 명령에 강한 반발 일으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밤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명령'이 포함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이번 포고령(제1호)에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의 복귀를 명령하는 항목이 포함되고 명령을 불복하면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분노가 쏟아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작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에 사직 전공의,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계엄사령부(계엄사)가 전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밝힌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한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

다'는 내용이 담긴데 따른 것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비상 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면서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말했다.

전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간 의협 차기 회장 후보자들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의협 전 회장)는 SNS를 통해 "울고 싶는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뺨 때려 달라고 애걸복걸한 꼴"이라면서 "오늘부로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 공백 현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주대표는 "그럼에도 의료노동단의 유일한 해법은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이라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SNS를 통해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처단 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자"라고 비판했다.

또 "어불성설의 계엄 선포로 의사들은 소위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 같은 일을 10개월째 당하고 있다"면서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당장 멈추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 등 의료인 복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해당 항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